

## 보건계열 학생의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의 관련성

류혜겸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ing 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the allied health students

Hae-Gyum Ryu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Received August 20, 2017; Revised September 10, 2017; Accepted October 2, 2017)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ing 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the allied health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69 allied health students in Gyeongnam from September to October 30, 2015.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5 items), employment stress(22 items), job searching efficacy(27 items). Data were analyzed by SPSS 20. program.

**Results:** In case of the man, good economic level, dissatisfied with major have higher job searching efficacy in allied health students.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had higher employment stress. The employment stress has an effect on higher self-esteem, higher employ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in case of the man, lower career adopted a capability.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reduce employment stress of the allied health students. That should be provide support of economical, innovation curriculum development opportunity of self-development on improve the self esteem and employ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interview skill, writing resume from freshman to broaden understanding of the majors, for the employment stress coping skill.

**Key Words:** Allied Health Students, Employment Stress, Job Searching Efficacy, Job Motivation, Job Skill, Self Esteem.

---

\*Corresponding author : [ryu8102@masan.ac.kr](mailto:ryu8102@masan.ac.kr)

## 1. 서론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정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등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수립하여 청년취업난 해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4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고등교육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2010년의 과도기를 거쳐 2012년부터는 졸업자의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취업자의 개념을 포함하여 취업통계조사가 실시되고 있다<sup>1)</sup>.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통계연보에서 전문대학의 전체취업률은 2014년 67.9%, 2015년 67.8%이었고, 주요대도시 전문대학 취업률의 경우 서울지역 2014년 66.2%, 2015년 65.5%, 부산지역 2014년 66.8%, 2015년 66.5% 대구지역 2014년 68.1%, 2015년 67.2%이었고, 경남지역 2014년 71.2%, 2015년 69.5%로 보고되었다<sup>1)</sup>. 또한 전문대학의 전체적인 취업률 현황분석 자료에서 2015년은 2014년에 비해 졸업생수와 취업률의 감소가 현저히 나타났고, 전공별 취업률 현황에서도 보건계열의 경우 2014년 76.0%, 2015년 74.4%로 전공영역에서도 취업률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각 분야 전문직업인의 수요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직업전문인을 양성하는 직업대학으로서 기능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직업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행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계를 부담하고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며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으로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확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룬다는 개인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sup>2)</sup>. 직

업선택은 인생에서 스스로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중 하나이다. 직업선택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 발휘의 기회, 거주지, 교육의 유형, 사회경제적 지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 간 관계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sup>3)</sup>. 취업 여부가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인 독립의 여부를 결정짓고 있는데, 취업포털 사람인이 2016년 5월 20대 청년 구직자 759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 취업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26.2%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지금까지 취업 사기 피해를 당한 횟수는 평균 2.1번으로 집계됐다<sup>4)</sup>고 하였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극심한 불안 및 긴장감 등의 스트레스를 유발 시킬 수 있다<sup>5)</sup>.

기업의 구조조정, 저성장고 물가 등 국내 경제 위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계열 학생의 경우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본인의 전공을 인지하고 대부분 졸업 후 관련 직종에 취업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인하여 지방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휴·폐업하는 병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최근 들어 휴·폐업한 지방병원은 2005년 39곳이었으나, 2009년 95곳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sup>6)</sup>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취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대학과는 달리 보건계열의 경우 진로 선택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반면 마지막 학기에 치러지는 국가고시 실기 및 필기시험은 보건계열 학생이라면 누구나 당면하는 과제이다. 국가고시 합격에 의한 면허증취득은 재학기간 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학과나 부모님의 경우 국가고시합격은 당연한 통과이례로 인식되어져 있고 취업 또한 마지막 학기에 결정되어져야 하는 상황은 학생들에게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전공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졸업과 동시에 취업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가고시 공부와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계열 학생대상 관련 선행연구로 Lee<sup>7)</sup>는 보

건계열과 비보건계열 학생들의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 Kang and Choi<sup>8)</sup>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치과의료종사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보건계열 학생과 취업스트레스 관련해서는 Shin<sup>9)</sup>, You<sup>10)</sup>은 보건계열 대학생 대상 자아존중감과 취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연구, Oh and Oh<sup>11)</sup>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연구, Kim and Bae<sup>12)</sup>의 보건계열학과 여대생들의 우울과 관련된 융복합적 요인 분석연구가 있었다. 반면 보건계열 학생 대상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관련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취업률 감소를 감안해 볼 때 보건계열 학생들의 구직효능감과 관련된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정부의 창조경제에 따른 일자리 창출정책과 청년취업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의료시장의 글로벌화 및 개방화로 인하여 의료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취업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지역 M대학교 보건계열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에 의해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치위생과 90명, 안경광학과 50명, 물리치료과 80명, 작업치료과 60명에게 직접설문조사방법에 의한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이 중 설문응답이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총 269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전공, 경제수준, 학업성적, 전공만족도 5문항, 취업스트레스 관련 22문항, 구직효능감 관련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취업스트레스 척도는 스트레스 측정법(Conel Medical Index: CMI)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Roh<sup>13)</sup>, Lee et al<sup>14)</sup>, Jeon<sup>15)</sup>, Ryu<sup>16)</sup>의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는 총 22문항으로 성격스트레스 9문항, 가족스트레스 5문항, 학교스트레스 4문항, 학업스트레스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리커트(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취업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0.924$ 로 나타났다.

구직효능감 척도는 Jung and Lee<sup>17)</sup>, Jeon<sup>18)</sup>과 Ryu<sup>15)</sup>의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구직동기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 4문항, 자기효능감 6문항, 구직기술에 해당하는 경력유동화능력 7문항, 고용정보관리기술 7문항, 대인관계기술 3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리커트(Likert)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직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구직효능감의 Cronbach's  $\alpha=0.861$ 로 나타났다.

###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0.0통계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분산분석(One-Way ANOVA),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84.0%로 많았고, 전공은 안경광학과 16.7%, 작업치료과 22.3%, 치위생과 31.6%, 물리치료과 29.4% 이었다. 경제수준은 중이 69.5%, 성적은 B학점 이상이 50.2%,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8.3%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Variables	N(%)
Gender	Male	43(16.0)
	Female	226(84.0)
Major	Optics department	45(16.7)
	Occupational therapy department	60(22.3)
	Dental hygiene department	85(31.6)
	Physical therapy department	79(29.4)
Economic level	Good	18(6.7)
	Average	187(69.5)
	Poor	64(23.8)
Credits	≥ A	34(12.6)
	≥ B	135(50.2)
	≤ C	100(37.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02(37.9)
	Normal	130(48.3)
	Dissatisfied	37(13.8)
Total		269(100.0)

#### 3.2.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수준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의 수준을 살펴보면 구직효능감 전체평균은 3.04점이었고, 구직동기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이 3.18점, 구직기술에 해당

하는 경력유동화능력이 3.25점으로 전체평균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취업스트레스 전체평균은 2.42점이었고 하위요인 중 학교스트레스 2.45점, 학업스트레스 2.63점은 전체평균보다 높게 조사되었다(Table 2).

Table 2. Job searching 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level

Classification	Division	Mean±SD	
Job searching efficacy		3.04±0.34	
	Job motivation	Self esteem	2.80±0.44
		Self-efficacy	3.18±0.51
	Job skill	Career adopted a capability	3.25±0.56
		Employ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2.94±0.61
Human relation skill		3.03±0.49	
Employment stress		2.42±0.68	
	Characteristics stress	2.31±0.75	
	Family stress	2.39±0.88	
	School stress	2.45±0.75	
	Schoolwork stress	2.63±0.79	

OSD: standard deviation.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분석결과 구직효능감에서 성별 ( $p<0.001$ )의 경우 여자(3.00)보다 남자(3.23)에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제수준( $p<0.001$ )은 중(3.03)과 하(2.97)보다 상(3.35)에서 높았고, 전공만족도( $p<0.01$ )는 보통(2.97)보다 불만족(3.15)에서 높았으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제수준과 전공만족도는 Scheffe의 사후검증결과 집단별  $p<0.05$  수준의 평균 차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에서 전공( $p<0.01$ )의 경우 치위생과(2.32), 안경광학과(2.26)보다 물리치료과(2.67)에서 높았으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증결과 집단별  $p<0.05$  수준의 평균 차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Job searching efficacy and employm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Job searching efficacy	F/p	Employment stree	F/p
		Mean±SD		Mean±SD	
Gender	Male	3.23±0.43	17.393***/0.001	2.44±0.88	0.009/0.926
	Female	3.00±0.30		2.43±0.64	
Major	Optics department	3.04±0.38	1.951/0.122	2.26 <sup>a</sup> ±0.68	5.182**/0.002
	Occupational therapy department	2.98±0.28		2.40 <sup>ab</sup> ±0.57	
	Dental hygiene department	3.10±0.36		2.32 <sup>a</sup> ±0.72	
Economic level	Physical therapy department	3.01±0.31	9.539***/0.001	2.67 <sup>b</sup> ±0.67	2.764/0.065
	Good	3.35 <sup>b</sup> ±0.43		2.43±0.85	
	Average	3.03 <sup>a</sup> ±0.32		2.37±0.67	
Credits	Poor	2.97 <sup>a</sup> ±0.30	1.443/0.238	2.60±0.67	0.683/0.506
	≥ A	2.98±0.31		2.32±0.59	
Major satisfaction	≥ B	3.02±0.32	6.588**/0.002	2.42±0.67	2.504/0.084
	≤ C	3.08±0.36		2.48±0.73	
	Satisfied	3.09 <sup>ab</sup> ±0.36		2.31±0.76	
	Normal	2.97 <sup>a</sup> ±0.28		2.49±0.60	
	Dissatisfied	3.15 <sup>b</sup> ±0.42		2.54±0.73	

SD: standard deviation.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or ANOVA; \*\*  $p<0.01$ , \*\*\*  $p<0.001$

<sup>a,b</sup>By Scheffed posteriori tests means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efferent( $p<0.05$ ).

### 3.4. 각 변수들의 상관성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 $r=0.523$ ), 대인관계기술( $r=0.226$ ), 전공( $r=0.186$ )에

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유동화능력( $r=-0.266$ ), 자기효능감( $r=-0.258$ )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	1										
x2	-0.006	1									
x3	0.186**	0.160**	1								
x4	0.114	0.065	-0.046	1							
x5	0.070	-0.007	0.013	0.083	1						
x6	0.113	-0.079	-0.005	0.035	0.222**	1					
x7	0.523**	0.085	0.134*	0.074	0.185**	0.103	1				
x8	-0.258**	-0.289**	-0.110	-0.202**	0.036	-0.068	-0.110	1			
x9	-0.266**	-0.236**	-0.112	-0.209**	0.024	-0.034	-0.100	0.763**	1		
x10	-0.062	-0.267**	0.018	-0.218**	0.069	0.013	-0.034	0.602**	0.628**	1	
x11	0.226**	-0.019	0.113	-0.074	0.035	0.105	0.303**	0.040	0.119	0.156*	1

x1: Job searching efficacy, x2: Gender, x3: Major, x4: Economic level, x5: Credits, x6: Major satisfaction, x7: Self esteem, x8: Self-efficacy, x9: Career adopted a capability, x10: Employ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x11: Human relation skills

The data were analysed by Pearson correlation; \*p<0.05, \*\*p<0.01

3.5.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계열 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모형의 설명력은 37.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beta=0.460$ ), 고용정보관리기술이 높은 경우( $\beta=0.141$ ), 남자의 경우( $\beta=0.113$ ), 경력유동화능력이 낮은 경우( $\beta=-0.215$ )의 순으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the job searching stress

		B	$\beta$	t	p-value	tolerance
Invariable		0.709		1.703	0.090	
	Gender	0.209	0.113	2.127*	0.034	0.871
	Major	0.061	0.094	1.835	0.068	0.926
General characteristics	Economic level	0.074	0.057	1.106	0.270	0.924
	Credits	-0.033	-0.032	-0.616	0.538	0.908
	Major satisfaction	0.025	0.034	0.670	0.503	0.922
Job searching efficacy	Job motivation	0.712	0.460	8.562***	0.000	0.844
	Self-esteem	-0.185	-0.139	-1.725	0.086	0.376
	Self-efficacy	-0.263	-0.215	-2.631**	0.009	0.364
Job searching efficacy	Career adopted a capability	0.158	0.141	2.093*	0.037	0.536
	Employ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0.117	0.084	1.580	0.115	0.853
	Human relation skill					

R<sup>2</sup>=0.371 adjusted R<sup>2</sup>=0.346  
F= 15,187\*\*\*, Durbin-Watson=2.113

p-value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0.05, \*\*p<0.01, \*\*\*p<0.001

#### 4. 고찰

경쟁사회에서 삶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취업스트레스는 졸업을 앞둔 보건계열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단기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신입생 시기부터 직면하게 되는 중단기적 스트레스로<sup>19)</sup>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적 환경과 취업에 대한 불안감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취업스트레스가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취업이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차 높아질 수 밖에 없다<sup>20)</sup>.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분석결과 구직효능감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는데, Yoon<sup>21)</sup>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직효능감이 높았다고 하였다. 현재 사회 분위기상 구직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없지만 오랫동안 이어져온 유교적 사상은 여자보다 남자의 경제활동을 중요시하는 인식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전공에 있어서는 물리치료과 학생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산업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만성질환,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이 증가하여 물리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발달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체적 장애를 입은 사람은 증가하고 또한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물리치료사의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다양한 진로선택에 따른 긍정적인 취업스트레스로 생각된다.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에서 구직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구직효능감으로 Song and Jung<sup>22)</sup>의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과 자립의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서 가정의 월평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형편이 좋다고 인지할수록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높게 나타 난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Yoon<sup>21)</sup>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있을수록 구직효능감이 높았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대학생활 만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취업 시 유리한 스펙을 갖추는 것은 구직활동에 따른 자신감으로 인해 구직효능감이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전공에 대하여 불만족인 경우 구직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대하여 불만족인 학생의 경우 다른 진로에 대하여 평소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나 취업에 대한 자립의지가 높아져 구직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결과 구직동기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Ryu<sup>16)</sup>의 치위생과 학생의 경우 본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Park et al<sup>23)</sup>, Jeon et al<sup>15)</sup>, Jeon et al<sup>24)</sup>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경기 불황, 취업난 악화, 불평등 심화는 불투명한 미래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청년백수 100만 시대라는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난이 가져온 시대적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다. Kim et al<sup>25)</sup>의 트렌드 코리아 2016에 의하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소비트렌드의 하나로 플랜 Z 세대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도 소비가 주는 행복을 결코 포기 하지 않고, SNS(Social Network Service)을 통해 서로의 생각이나 정보를 주고 받으며, 1인 미디어 산업확산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한 재해석을 필요로 한다. 인터넷 온라인 공간을 통한 다양한 정보와 세계화 추세는 학생들에게 폭 넓은 직업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세분화 되고 전문화된 다양한 보건계열의 직업군 속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취업스트레

스는 당연히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구직기술에 해당하는 고용정보관리기술이 높은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정보관리기술이란 다양한 구직방법 중 자신의 인성적 특성과 개인적 성향을 고려하여 활용가능한 구직방법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Ryu<sup>16)</sup>의 연구와 일치하고, Robotham와 Julian<sup>26)</sup>의 연구에서 구직준비행동수준이 증가 할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연구와 유사하였다. 고용정보관리기술에 대한 항목에는 원하는 직종의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조사능력,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의 연락처 인식, 구직을 위한 의료기관의 직접방문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구직자 입장에서 본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을 인지할수록 느껴지는 취업스트레스로 구직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자신감 상승효과로 취업스트레스가 높다하더라도 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남학생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 and Park<sup>27)</sup>, Shin<sup>2)</sup>은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에 비해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반면 Park<sup>28)</sup>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으로 외벌이 보다는 맞벌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남자가 가정경제의 주체라는 인식과 가족부양의 주 책임자라는 부담감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직기술에 해당되는 경력유동화능력이 낮은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hin<sup>2)</sup>의 대학생 대상 경력유동화능력이 취업스트레스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Ryu<sup>16)</sup>의 치위생과 학생대상의 경력유동화능력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 면접 시 직업에 대한 목표의식 정도와 생각한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장래직업의 발전 능력정도 등을 상대방에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과 면접능력, 구직관련 서류작성(이력서, 구직신청서, 자기소개서)이

모두 경력유동화능력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이러한 능력이 부족할 경우 구직에 당면한 학생입장에서는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건계열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분석결과 구직효능감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이 높았고, 전공에 대하여 불만족인 집단이 높았다. 취업스트레스는 물리치료과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고용정보관리능력이 높은 경우, 남자의 경우, 경력유동화능력이 낮은 경우의 순으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졌다.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증가와 의료복지에 대한 수요증가는 중장기 인력수급 현황에서도 보건계열에 대한 전망이 밝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당면한 보건계열 학생이 느끼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타 계열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 전공학생들이 느끼는 취업스트레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건계열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신입생부터 효과적인 면접기술능력과 본인의 개인적 성향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구직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육과정개발과 현장실습 규정을 보완하여 현장실습 시 관찰시간 보다는 본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서 확고한 구직동기에 의한 취업부담감을 해결하고, 학교에서는 취업에서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는 자기개발의 기회제공 및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특정지역 학교의 보건계열 4개과에 한정되어 있어서 보건계열 학생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보건계열별 이해상충에 의해 세부적인 취업스트레스 수준을 연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적 지역별 표본을 추출하고 보건계열의 과별특성을 반영한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의 도구개발과 더불어 세부적인 하위요인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요 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취업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경남지역 소재 M대학교 보건계열 3학년 학생으로 치위생과 90명, 안경광학과 50명, 물리치료과 80명, 작업치료과 60명 총 269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 방식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계열 학생에서 남자인 경우, 경제수준이 상 인 경우,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 구직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는 물리치료과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2.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고용정보관리기술이 높은 경우, 남자의 경우, 경력유동화능력이 낮은 경우의 순으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건계열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신입생부터 효과적인 면접기술능력과 본인의 개인적 성향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구직기술을 향상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육과정개발과 현장실습 규정을 보완하여 현장실습 시 관찰시간 보다는 실습 양을 증가시켜 확고한 구직동기에 의한 취업부담감을 해결하고, 학교에서는 취업에서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는 자기개발의 기회제공 및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Naver[Internet].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ite 2016 June 22]. Available from: <http://edpolicy.chedi.re.kr/EpicTrend/Epic/EpicTrendView.php?LstCary=B00802&id=27793&SO>

U RCENAME2=&PageNum=&SearchWord=&SearchMode=&sdate=&edate=&check=&ContCate=&attachId=.

2. Shin KS, Joe EJ. The effects job-seeking skill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job-seeking in college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013;3:143-60.
3. Plumly L, Oliver J. The locus of control attribute and the job search process. *Psychological reports* 1987;61:907-10. <http://dx.doi.org/10.2466/pr0.1987.61.3.907>
4. Daum[Internet]. Kyunghyang shinmun; [cite 2016 November 4]. Available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302226565&code=950306](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302226565&code=950306).
5. Kim EY.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in relation to their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Korean Counsel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7;19: 1079-100
6. Daum[Internet]. ChungCheonTODAY;[cite 2016 November 14]. Available from: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91277>.
7. Lee MR.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IDS in undergraduates for the health-related department and the health-unrelated department. *J Korean Soc Dent Hyg* 201;1: 213-22
8. Kang EJ, Choi MH. Study on the perception of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about the personal protection of dental personnels. *J Korean Soc Dent Hyg* 2011;11:637-47.
9. Shin SH.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health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0;10:663-70.
10. You EY. Self-esteem and stress-coping strategies of the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09;9: 225-36.
11. Oh ES, Oh EH. A qualitative study on job-seeking stress for university students ma-

- joring healthcare. *J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Education* 2013;14: 25-35.
12. Kim SH, Bae SY. Analysis of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mong some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5;13:367-76.
  13. Roh HL. Promote of healthy clinical expert for analysis of sleep type and stress level on university students on health seri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7;5(1):803-807.
  14. Lee MJ, Kwon SH, Goo HJ. A study on job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in Changwon.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3;1(3):39-48.
  15. Jeon MJ, Jung SE, Cho SH, Han EJ, Hyeon JW, Kim SH.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employment appeara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som regions. *J Dent Hyg Sci* 2015;15(4):518-526. <http://dx.doi.org/10.17135/jdhs.2015.15.4.518>,
  16. Ryu HG.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ing 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6;16(4):591-9. <http://dx.doi.org/10.13065/jksdh.2016.16.04.591>.
  17. Jung HY, Lee KS. A study on the stress self-esteem, mental health and suicidal-ide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5;3(2):328-339.
  18. Jeon CY.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areer stress-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earching efficacy. *J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13;1:1-14.
  19. Shim JE, Ahn HY, Kim JH.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J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ling* 2011;32: 103-18.
  20. Jo MJ.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and stres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Job and Employment Service* 2010;5:47-60.
  21. Yoon M. A study on the job-seeking efficacy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6.
  22. Song JH, Joung SH.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elf-reliance in adolescents: focusing o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and the parenting styles. *The Research Center for Korea Youth Culture* 2014;37:31-58.
  23. Park HS, Bae YJ, Jeong SY.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2;11:621-31.
  24. Jeon ES, Hwang SH, Ko HJ. Factors which affect mental health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14;14:424-432
  25. Kim ND, Jeon MY, Lee HE, et al. *Trend korea* 2016. Seoul: Miraebok Pulishing Co; 2016:1-435
  26. Robotham D, Julian C. Stress and the higher education student: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J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2006;30(2): 107-17. <http://dx.doi.org/10.1080/03098770600617513>
  27. Park SH, Park HJ.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career-related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college student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9; 6:67-81.
  28. Park S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on their job-seeking stres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servity, 2013.